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질병관리본부 ·

NEW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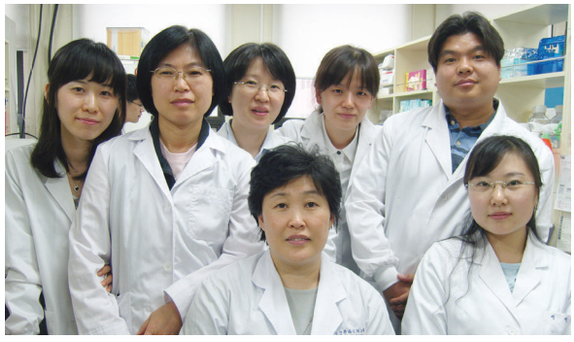
2009년 5월호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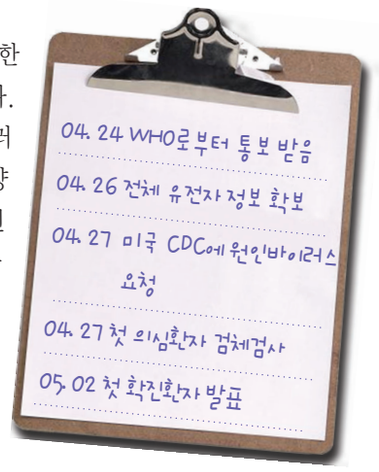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진단검사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2009년 4월 24일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겐 잊지 못할 날로 기억 될 것 같다. WHO로 부터 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부터 즉각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전 직원들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진단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의심 환자 진단을 위하여 하루 스물 네 시간의 분초를 아껴가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4월 23일 ProMed mail을 통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SI(Swain Influenza)인체 감염사례가 발생 사례를 알게 되었고, 4월 24일 오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먼저 4월 26일 전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진단체계 확립을 위하여 미국 CDC에 이 원인 바이러스를 요청하였다. 확보된 8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근거로, 기존의 계절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전체에 공통적인 M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이 SI(Swain Influenza)라고 처음 알려진 신종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접근 방법을 구상하였다. 즉, 신종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M 유전자 PCR에 양성이면서 기존의 사람 인플루엔자바이러스 H1형과 H3형,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아닌 unsubtyped A 에 속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4월 27일 멕시코로부터 귀국한 첫 번째 의심환자의 검체를 이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예측한대로 unsubtyped A로 나타났고, 그 후 M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 한 결과 미국에서 발표한 이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A/California/04/2009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게 분석된 점으로 부터 추정 환자 진단을 하게 되었다.

이 후 세포 배양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병변효과 등 확진을 위한 자료가 축적되어 5월 2일 확진 발표를 하게 되었다.

■ 목 차 Contents

01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03 News Focus_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맞춤 의학 구현을 위한 유전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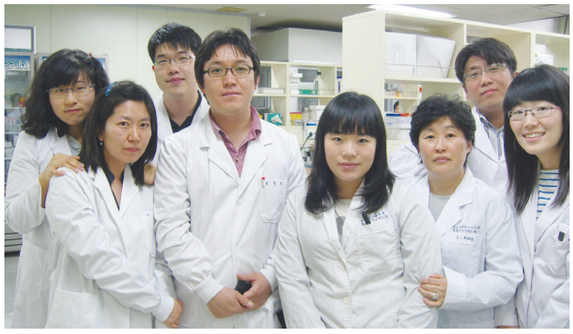
04 WHO는 지금

06 만성병 조사 · 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_ 퇴원손상심층조사

08 부서소개_ 생물테러대응과

10 우리는 지금_ 생물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12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요령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에는 접촉자 조사 등을 통한 다수의 의심환자의 검체가 의뢰되고, 추정 환자가 확인되어가는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전 직원 21명을 실험 단계별로 두세명 단위의 팀으로 나누어 밤을 새워가며 신속한 결과를 내는데 전력하고 있다.

모든 검체에 대해 2명이 각각 실험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험의 오류를 막도록 하였고, 수시로 실험 진행 상황 점검과 정도 관리 등 신뢰도 높은 결과를 보장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중요하다. 그래서 1일 2교대로 운영되는 진단팀 이외에도 세포와 유정란을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팀, 전체 염기서열 분석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단계별로 염기서열 분석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분석지원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확진을 위해 필수적인 염기서열 분석을 담당하는 두 연구원은 거의 교대로 밤을 새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에 과학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이번 기회를 오히려 기뻐하며, 다른 직원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



지금은 WHO 나 미국 CDC에서 제시하고 있는 real time RT-PCR 방법을 확립하여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검역소에서 자체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전체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Gene Bank에 등록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족제비와 마우스를 이용한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분리주의 병원성 조사 등의 추가적인 실험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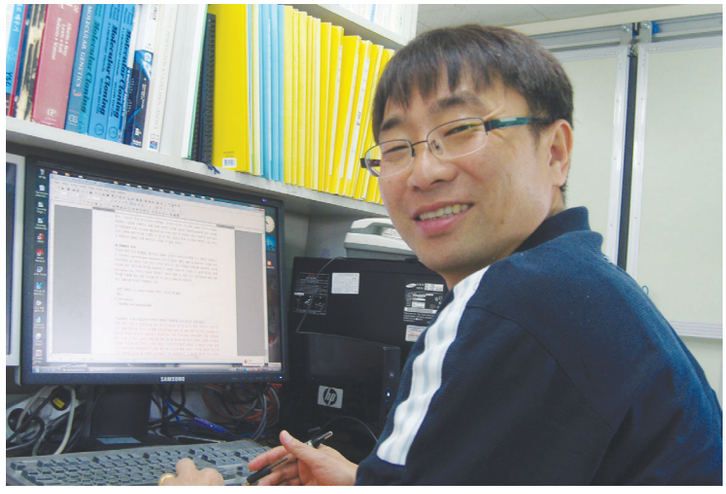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신종 인플루엔자A (H1N1) 바이러스 유행의 규모, 지속 기간 등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병관리본부 내 관련 부서 전 직원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한데 모아진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날이 먼 미래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

News Focus_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맞춤 의학 구현을 위한 유전체연구 KARE (Korea Association REsource, 이하 KARE) 프로젝트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 형질연구과 조윤신 박사 연구팀의 연구가 유전학 분야의 국제저널인 '네이처 지네틱스(Nature Genetics)' 온라인판(4월 27일자)에 게재됐다(원문제목: A large-Scale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Asian populations uncovers geneti factors influencing eight quantitative traits). 한국인 1만 명의 유전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축기 혈압, 맥박, 허리 대비 엉덩이 둘레(WHR), 뼈 강도 등에 영향을 주는 6개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혈압, 맥박, 뼈강도 등이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유전체실용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KARE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KARE 프로젝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장유전체연관분석을 통하여 생활습관성질환 (예: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고지혈증, 천식 등) 및 건강관련형질(예: 혈압, 맥박, 뼈 강도, 허리/엉덩이둘레비, 체질량지수 혈중지질농도, 간효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전체 역학코호트 사업을 통하여 본 유전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안성/안산 코호트 참여자 전원(약 10,000명)을 대상으로 Affymetrix 5.0 chip을 이용하여 500,000개 이상의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이하 SNP) genotyping 정보를 생산하였다. 생산된 genotyping data와 임상정보를 연계시킨 통계분석을 통해 제2형 당뇨병 및 약 23개 종류의 건강관련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요인들을 발굴하였다.

특히 *수축기혈압, 맥박, 허리/엉덩이둘레비, 골강도, 키, 체질량지수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11개 SNP들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이들 중 6개의 SNP들은 세계 최초로 보고됨) 관련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Nature Genetics 지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덧붙여 KARE 프로젝트를 통하여 생산된 일반인 약 10,000명 이상에 대한 500,000개 이상의 SNP 정보는 국내 질환유전체 연구자들에게 분양되어, 환자-대조군 GWAS에서 대조군으로 활용됨으로서 국내 유전체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HO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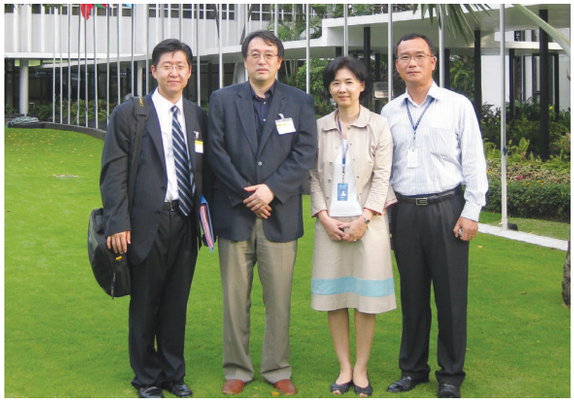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뉴스레터 5월호에는 WHO 마닐라 사무소(WPRO)에서 일하시는 지영미 박사의 글을 특집으로 싣는다.

EPI(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부서 소개

WHO/WPRO의 EPI(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는 1997년 내가 질병관리본부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폴리오박멸을 위한 WHO 지정 국가실험실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온 부서이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단기 자문관 역할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EPI 부서는 전염병 퇴치를 책임지고 있는 Division of Combating Communicable Diseases(DCC)에 속하는 EPI, CSR, STB, MVP HIV/STI 등 5개 Unit 중 하나로, 2003년 사스(SARS)가 발생하기 전에는 WPRO 예산의 80-90%이 폴리오박멸사업 등 EPI 사업에 사용했다고 할 만큼 큰 부서였다.

지금은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CSR)Unit에 이어 인력이나 예산 규모에서 두 번째로 큰 부서로서 예방접종 대상 질환으로 인한 질병 이환, 사망률 그리고 disability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 세계 폴리오박멸을 위시하여 홍역, 신생아 파상풍퇴치, B형 간염 관리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백신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human papilloma virus 백신,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백신의 도입 관련 업무 등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은 2000년에 이미 지역 내 폴리오박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후 2005년에 폴리오박멸 상태를 유지하면서 2012년까지 홍역을 퇴치하고 B형 간염을 관리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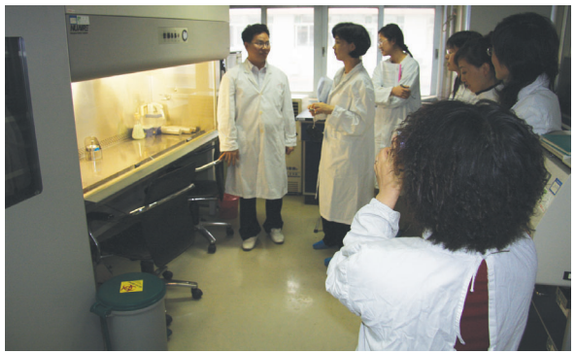
2005년 World Health Assembly와 UNICEF의 Executive Board는 예방접종 분야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네 가지 글로벌 예방접종 비전 및 전략(GIVS : Global Immunization Vision and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국가 대상의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활동 (supplementary Immunization activities)을 실시하여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한편, 질 높은 감시체계의 운영을 통해 각국의 예방접종 정책입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년 간 업무 소개

나의 업무는 이 지역 내 12개 국가의 폴리오 실험실과 16개 국가의 홍역 실험실, 그리고 추가로 중국내 서른 한개 성에 소재하고 있는 실험실에 대한 관리이다. 그 중에서도 각국의 EPI 네트워크 실험실 평가와 인증을 위한 방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외에도 WHO 회의 참석, 지역 내 실험실의 교육훈련과 실험실 회의를 주관한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일하면서 마닐라 사무처에서 일한 기간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곳을 다녔다.

지역 내 실험실 네트워크의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실제로 실험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EPI 실험실 네트워크는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에 속한 37개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폴리오 또는 홍역 실험실을 방문하였다. 실험실을 방문하다보면, 실제로 질 관리 면에서 배울만한 점들을 보게 되고, 각국의 EPI 감시체계 또는 실험실





분야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과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중 가장 인상적인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은 지역 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큰 나라인 만큼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매년 폴리오와 홍역 실험실 인증을 위해서 WHO/HQ, WHO/WPRO, US CDC, JICA 등 공동으로 China CDC의 국가 실험실 및 10-12개의 성 단위실험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2008년 10월에는 열흘 동안, 북경과 다른 성을 방문하여 실험실 인증을 수행하는데, 일정동안 거의 매일 참석해야 하는 만찬에서 30-40 번의 건배 제의에 응했던 경험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필자에게는 매우 곤혼스러운 일이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쌓은 10년간의 국가 경험이 WHO/WPRO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각 시도의 실험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국가 실험실로서 WHO 네트워크 실험실에 참여하여 얻은 기술적인 경험 등이 WHO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 WHO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WHO/WPRO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출신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소통(communica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기술이 요구되며 최근에는 특히 통합(integ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을 통한 업무운영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인플루엔자 A(H1N1)인체 감염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인 CSR부서 이외에도 전염병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가 적극 협력하며 나도 실험실 분야 업무 지원을 위해 SI(Swain Influenza) 비상대책팀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소통과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마닐라 생활

마닐라는 여러 면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도로 사정이 아주 나빠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 보면 멀미도 잘 나고, 평소에는 30분이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홍수가 나면 3-4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날씨가 항상 더워서 기후가 조금 선선해지는 12월과 1월 이외에는 야외에서 산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이 그립기도 하다.

필리핀 상류층은 과거 필리핀을 식민통치 한 스페인 혈통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학교에서는 영어와 따갈로그어를 가르친다. 스페인 통치의 영향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으로 신앙심이 매우 돈독하여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크게 경축하며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는다. 필리핀인들은 이렇게 두터운 신앙심과 강한 가족애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한다.

마닐라에서 **지영미** *jeey@wpro.who.int*

최근 국내의 많은 젊은 인력이 WPRO 인턴 십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젊은이들이 WHO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가 될 것이라 믿으며, 그 동안 거의 국내에서만 머물었던 경쟁력 있는 한국 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과

2005년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나 자살 등으로 인한 손상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만성질환 및 손상은 적극적인 예방관리정책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이 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요 질환 및 손상 예방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보건통계를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자료는 보건통계 산출시 비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원으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각각 퇴원환자조사(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NHDS),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 NHMD)와 같은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국가단위의 보건의료통계 생산 및 손상규모를 파악하고자 2005년도에 「퇴원환자조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실적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 중 시도별, 병상규모별로 의료기관을 표본추출하여 선정하고 표본병원의 총 퇴원환자 중 약 9% 또는 병상규모별 조사건수를 추출하여 2005년부터 총 684,932건이 조사되었으며 2007년부터 질환별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2,138건, 뇌졸중 4,862건이 조사되었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수집 현황〉

단위: 병원/천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병원수	150	150	150	170	170
참여수	147	147	144	168	170
건수	175	162	170	178	180
참여율(%)	98	98	96	98.8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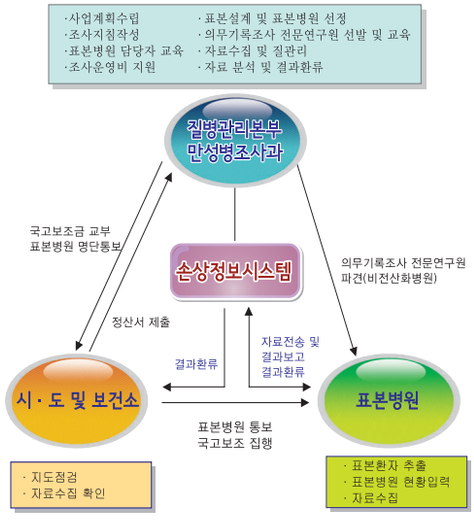
주요 사업 내용

퇴원손상심층조사 수행

퇴원환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퇴원요약자료의 전산화여부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조사문항이 전산적으로 추출이 가능한 병원은 자체조사, 전산적 추출이 불가능한 병원은 의무기록조사 전문연구원이 파견되어 조사하고 조사의 효율성 및 질관리를 위하여 개발한 「손상감시자료수집·분석시스템(http://injury.cdc.go.kr/cdcadmin)」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전체 퇴원환자, 손상 퇴원환자 심층조사, 심뇌혈관질환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퇴원손상환자조사체계〉



전체 퇴원환자는 17개 문항으로 인구사회 · 지리학적정보, 환자내원정보, 질병 및 치료정보와 손상 퇴원환자는 8개문항으로 손상외인코드 및 손상관련 심층정보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만성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총 35개 문항으로 내원정보, 위험요인정보, 시간정보, 진단 및 치료정보 등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의무기록조사 전담팀 운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단위 보건의료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단계의 일관성과 표준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의무기록전공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무기록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수행, 표본병원 조사지원, 지속적인 심화교육,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자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의무기록조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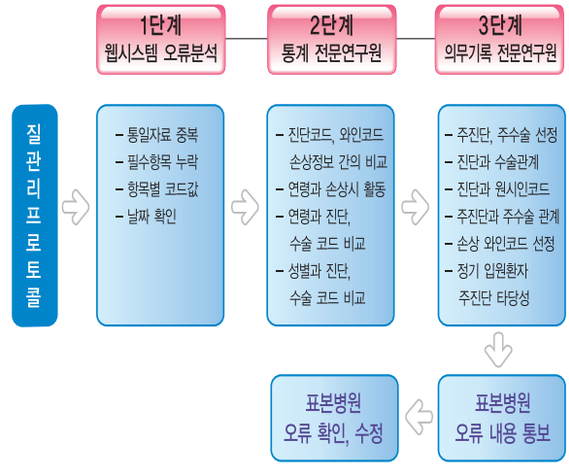
조사자료의 표준화 및 질관리 지원

조사수행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의무기록조사지침' 발간하고 표본병원 담당자 및 일선병원 담당자 대상으로 진단 및 수술코드 분류준칙과 심층조사 대상 질환에 대한 임상특강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D-10에 근거한 질관리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조사자료에 대한 질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계적 질관리는 「손상감시 자료수집 · 분석시스템」과 통계기법 활용, 의무기록 전문연구원이 조사문항을 코드와 연결하여 적절성 평가를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정화된 조사체계 구축

2007년 조사사업에 참여한 표본병원에 대해 우수병원 표창과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였다. 대한의무기록협회와 협의하여 표본병원 담당자교육에 참석한 의무기록사에 대하여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하고 조사자료의 질관리 결과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우수병원을 선정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5개 병원을 수여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3개병원을 확대하였고 2008년 9월 대한의무기록협회와 협력협정서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조사기반을 마련하였다.

〈퇴원손상환자조사 질관리 프로세스〉



향후 추진계획

보건의료통계의 지속생산을 위하여 안정적인 조사기반을 마련하고자 표본병원,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표본병원에 고급경영정보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류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서소개

생물테러대응의 절대강자 *생물테러대응과*

생물테러대응과는 우리나라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의 총괄부서로서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생물테러 감시 및 실험실 진단,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동대응, 교육·훈련 및 필수비축물자 확보 등 생물테러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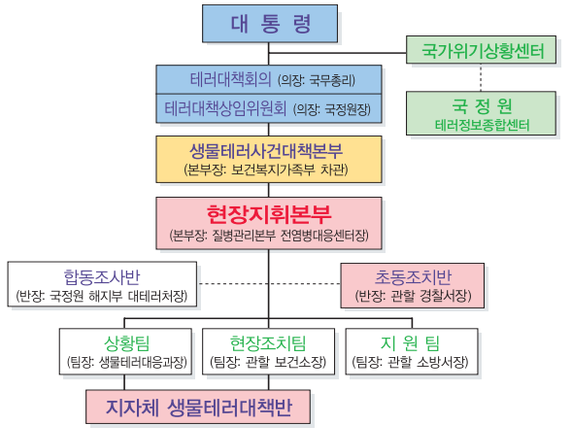


2001년 미국에서 탄저균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1월 정부차원의 생물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테러 전염병인 두창, 바이러스성 출혈열(라싸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보툴리눔독소증, 탄저, 페스트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물테러대응과는 미국의 탄저테러 사태를 계기로 2003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국가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백색가루 등 생물테러 의심물질 발견시 초동대응 조치, 전국 176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활용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실험실 진단 네트워크 구축 및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운영, 초동대응요원 및 보건의료인 대상 생물테러대비 교육·모의훈련, 필수비축물자 확보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소개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차원의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의심사례(백색가루 등) 발생시 보건,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초동조치반이 출동하여 초기 상황에 대처하고, 생물테러 발생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 현장지휘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의료기관 이중감시체계 운영

생물테러 전염병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전국 126개 시·도별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부터 생물테러의심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전국 50개 감염내과 전문의 혹은 소아 감염학 전문의로 구성된 감염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하여 생물테러 전염병 발생시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보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적시에 대응조치를 취하여 유행발생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실험실 진단 네트워크 구축 및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운영



생물테러 의심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병원체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실험실 진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및 전국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에 Biosafety Level (BL) 3급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생물테러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초동대응요원 대상 교육 및 모의훈련









생물테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생물테러 의심사례(백색가루 소동 등)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테러 일선 초동대응요원들(보건, 경찰, 소방 생물테러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시·도별 연 1회의 생물테러 관련 이론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모의훈련은 현장통제, 검체채취 및 판정, 환경제독, 검체이송 등의 초동대응훈련과 생물테러 발생시 비축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효율적인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해당 시·도 및 의약품보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축의약품 비상운송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 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비상훈련

생물테러 발생시 의료기관의 조기 인지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의료기관(총 176개소)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인 생물테러 역량강화 워크숍"을 권역별로 연 4회, "의료기관 생물테러 대응 비상 모의훈련"을 권역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생물테러 관련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고, 비상훈련에는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예방백신 및 치료약 투여, 병원 통제 및 제독,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

필수비축물자 확보·관리 및 현장지휘본부 차량 운영

생물테러 발생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부대장비(검체채취용기, 검사장비, 제독장비 등), 신속진단키트, 예방·치료약품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국내·국제행사와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검체수거 및 간이검사 실시, 실험실까지의 신속한 이송과 현장 지휘 및 역학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 출동 및 중앙 통제소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지휘본부 차량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생물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지난 4월 16~17일, 국립동해검역소에서는 '전국 최초 두창 생물테러 모의훈련 및 2009년 전국 국립검역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통하여 초동태세 완비 및 유사시 위기대응 능력 향상하고, 이 날 모인 전국 검역소 검역관님들의 친목도모와 좋은 직장 만들기(GWP)운동으로 체육행사를 가졌다.



최근 국제분쟁, 인종 · 종교 갈등 등으로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두창을 주제로 한 생물테러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님의 개회사와 김학기 동해시장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 국정원, 동해경찰서, 동해소방서, 동해시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참가하고, 전국 13개 검역소, 강원도내 18개 보건소 · 경찰서 · 소방서*가 참가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탄저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한 종전과는 달리 이번 모의훈련은 바이러스 전염병인 두창을 대비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상황접수 및 전파를 시작으로 환자를 후송하여 격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었으며 이는 실내에서 치러져 참관자들에게 보다 집중도 높은 모의훈련을 보여줄 수 있었다.

방송사에서도 이번 모의훈련에 많은 관심을 보여서 국민을 대상으로 검역홍보 극대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날 모의훈련영상은 CD로 제작되어 각 검역소로 전달 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획조정담당실의 정용수 사무관의 우리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는 조직의 확대와 급변하는 우리 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엘테크리더쉽 개발원 조미옥 박사의 GWP 개념 및 사례에 대한 강의는 GWP 이해와 리더쉽을 함양시킬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었다.

저녁에는 망상오토리조트 야외 특설장에 마련된 바비큐 파티는 전국 검역인의 화합의 장에 어울릴만한 최고의 음식으로 동해검역소에서 준비하였고, 이날의 흥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이튿날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인천공항, 부산, 목포, 동해 등 13개 검역소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체육대회는 동일 권역 소속기관만 참가하여 매년 개최되었다가 전국 검역소가 모두 모인 체육대회는 10년만의 만남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행사 전날까지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행사







당일은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주는 듯 했다. 대회는 각 검역소별로 족구와 계주로 실시되었고, 질병관리본부 축구팀과 각 검역소 대표의 축구 친선경기 순서로 진행되었다.

따뜻한 봄볕 아래 치러진 족구 경기는 열띤 응원과 외항 검역으로 다져진 체력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로 더욱 흥을 돋우어, 체육대회 분위기를 절정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날 경기 중간 중간에 먹을 수 있게 마련된 꼬지 어묵과 편육은 행사의 또 다른 재미를 가져다 준 음식들이었다.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4월에도 약간 쌀쌀한 날씨임을 감안하여 준비한 따뜻한 꼬지 어묵은 그 어떤 산해진미를 가져다 놓아도 뒤쳐지지 않을 체육대회의 1등 먹거리로 등극 하였으며, 경기를 막 마치고 온 선수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 줄 편육은 없어서 못 팔정도라는 이야기를 실감 나게 한 인기메뉴였다.

계주대회는 검역소별로 남자 3명과 여자 1명을 선발하여 경기를 시작하였다. 선수와 응원단 마음이 하나가 되어 시합이 진행되었으며, 특별 이벤트로 전염병대응센터장 이하 질병관리본부 팀장과 전국 검역소장의 계주 경기는 나이와 지위를 잊은 듯 젊은 직원 못지않은 승부욕과 달리기 실력을 뽐내 주셨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 축구팀과 전국 검역소 축구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가 이루어졌다. 투 팀의 경기는 한-일전을 연상 시키듯 치열하게 경기를 치렀지만 3 : 3 동점으로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승패를 떠나 우리는 소중한 노력과 열정, 화합의 분위기로 승리 그 이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체육대회 결과 족구 1위는 여수검역소 2위는 울산검역소에서 차지하였고, 계주 1위는 마산검역소 2위는 여수검역소에서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계획에 없던 응원상이 즉석으로 신설되게 만든 부산검역소의 아리따운(?) 두 미녀에게 마지막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리고 2010년 전국 검역소 체육대회를 개최할 인천공항검역소에게 대회 현수막을 전달하면서 체육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각 검역소에서는 직원들 간의 단결력이 한층 강화되어 원활한 GWP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질병관리본부와 검역소가 한마음이 되어 국내로의 전염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환상의 콤비가 되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이것이 올바른 예방요령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행동요령을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 행 일 : 2009. 5월 (통권 제18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배송미, 심혜용,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SN 1976-7579
05
9 771976 757908